

전교조 “교원 수당 수십년 동결, 현장 외면”

전교조, 교육부에 수당 개편 요구
 26년째 25만원...“IMF 수준”
 “교사만 직급보조비 제외” 지적
 도서벽지·직업계고 수당 장기 동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요지부동인 교원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지난 12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30년 넘게 방치된 수당 인상과 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소외된 ‘직급보조비’ 신설, 변화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신규 수당 신설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교조는 ‘교직 수당’의 경우 교직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당임에도 26년간 25만 원으로 동결되어 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교직 수당의 인상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는 “직급보조비 역시 공무원 직군 중 교사만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수당에 속한다”며 “직급 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다른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성 수당과 더불어 직급 보조비를 둘 다 받는 상황에서 교사에게만 하나의 수당만을 주는 것은 기만”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31년 넘게 동결된 도서벽지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32년

넘게 동결된 직업계고 수당 역시 위험한 실습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 기술 교육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폭력·다문화·전담교사 수당 역시 학교폭력 처리 업무의 과중함과 다문화 학생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 부담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으며, 이를 ‘사명감’으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당 체계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11년째 동결된 교원연구비와 20년째 제자리인 순회교원 및 복식수

업 수당 역시 교직의 전문성 저하를 방전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수당 인상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갈수록 반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반면, 교사들은 늘어나는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교육 등 사회적 요구를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정작 그에 따른 보상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는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에 따르는 최소한의 예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수당 조정 요구는 단순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투정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방치된 교직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현장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요구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조속히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번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상투적인 핑계로 교사들의 헌신을 외면한다면, 전국 50만 교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지방의원 출마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환영”

의원 사퇴 없이 단체장 출마 가능
 지방의회 의정 공백 최소화
 지방자치 활력 제고 등 전망

전북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16일 도의회(의장 문승우)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임후보 시 시작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임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이에 대해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임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인 결과”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 활성화는 물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윤준병 의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통한 지역 대표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위기아동·청년법’ 앞두고 16일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열린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현장 소통 간담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관영 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안호영 “도지사 경선, 내란보다 정책으로 검증해야”

이원택 ‘내란 토론’ 제안 거부
 “전북 발전 전략 중심 토론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후보는 16일 “내란보다 정책으로 검증하자”며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안 경선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 권리당원과 도민이 누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내란만을 두고 다투는 정치로 흘러가는 것은 전북도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며 “저는 내란 검증이 아니라 정책검증을 하겠다. 내란에 대한 평가와 책임 역시 도민 앞에서 분명히 가져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경선 후보는 이날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계엄당시 불법계엄에 순

응했다면서 관련 증빙서를 제시하면서 “김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 앞 공론장에 나와 맞장 토론에 응하라”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이같은 안 후보의 입장은 이 후보의 내란 토론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경선의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며 민주당 공관위가 후보 자격을 인정한 김관영 지사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북발전 전략 중심으로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북도지사 경선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라면서 “마이너스 경제를 기록했던 지난 4년 도정을 연장할 것인지, 8년 전 무기력한 도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북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라며 정책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 폭설·한파 ‘안전 방어’...겨울철 재난대책 마무리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국지성 폭설과 기습적인 한파가 반복되며 기상 상황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도는 대책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대응 상황을 상시 관

리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대설·한파 특보가 발표될 때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총 20회 가동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 2월 7일 도내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정읍·고창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자, 전북자치도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전진기지 19개소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제설 취약구간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

적으로 살포해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또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 454개소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단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한 사전 점검과 수시 예찰을 실시하며 재산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응도 강화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도내 6개 부서가 참여한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실무회의’를 개최해 치매환자 4만6천여 명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와 재난도우미 등 약 9만 명의 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72만 건의 안부 확인과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겨울철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오백립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회 고창군의회

전북도,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점검

김중훈 부지사 정읍 현장 방문 공공형 기숙사 생활 환경 확인 농가 인력 수급 애로 청취

전북도는 16일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와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번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근로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와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증강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기숙사(북면 칠북로)를 찾아 숙소 환경과 생활

시설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해당 기숙사는 2025년 개관했으며 최대 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정읍면에 위치한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현황을 둘러보고 농가의 인력 수급 상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단기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숙소 환경 점검, 생활 안내, 고충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험료와 항공료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



<사진=전북도>

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과 생

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내 시군과 협력해 농촌 인력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안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의 입지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와 관련 “RE100 산업 구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전북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가 아니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AI와 반도체 같은 국가 성장 산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을 이해하고 전북 산업 구조를 이에 맞게 바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지사는 대통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안 후보는 “당정이 흔들리면 국정도 실패하고 전북 발전도 실패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안호영 도지사 경선후보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발전 전략 중심의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타임스>

당 대표, 전북도지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 삼두마차의 중심에서 전북의 몫을 담당하게 되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김관영 지사, 끝장토론 응하라”

도민 앞 공개 토론 공식 제안 “검증, 정쟁 아닌 민주주의 문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지사 경선후보는 16일 “김관영 지사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경선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방조는 민주주의도, 도민의 뜻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김관영 지사의 ‘12·3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해 도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개 끝장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며 “도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 토론 제안에 대해



이원택 후보

“정쟁보다 정책 경쟁이 옳다”며 거절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과 며칠 전 김 지사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과도 모순되는 태도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전북도지사 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밝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공적 검증이다”고 덧붙였다.

또 “계엄당시 도청 문서에는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준예산 편성 준비’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말로는 내란 반대

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서가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직격했다.

그는 “‘네거티브’로 폄하하는 것은 민주당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독재에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민주당 공직자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미 정치생명을 걸고 진실 규명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끝장 토론 공개 중계 제안이 있었다.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해명이든 반박이든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 지사는 공론장에 나와 내란의 밤에 대한 진실과 전북의 미래 비전에 대해 도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향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발의

민간개발 과도 이익 제한 분양가 총사업비 115% 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향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민간 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이후 평택·인원·부산에서 6개의 향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향만배후단지 개발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윤준병 의원

이익 추구 및 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향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문제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제도 등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해 제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되, 적정수익의 확보는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등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맞춰 분양가액이 총사업비의 1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4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취득 토지를 제3자에게 100% 분양하여 물류기업 유치라는 향만배후단지 개발 목적을 형해화하고, 분양 수익만 향유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향만배후단지 개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정은경 복지부장관,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 방문

위기아동청년법 앞두고 현장 점검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 논의

전북도가 16일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8월 출범한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765명에게 약 13억 4,3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IBK 행복나눔재단·월드비전 등과의 민관 협

업을 통해 약 2억 3,0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114명을 별도 지원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학업·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아픈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초기 상담부터 일상회복, 사회관계 형성, 간단한 일 경험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생활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같은 조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청년 당사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은지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족돌봄 청년·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상담·사례관리·자립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점검됐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이후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관영 지사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전북의 추진 경험이 전국적인 정책 확산 과정에서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연금사업
-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비축하여 임대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혜택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장 10년간 임대 및 한해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청년후계농(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홈페이지 www.fbo.or.kr

상담/문의 **1577-7770**

전주시 '피지컬AI-J밸리 추진단' 운영

전담 조직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전주시 '피지컬AI-J밸리' 사업 전반 전담 조직인 '피지컬AI-J밸리 추진단'이 신설·운영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전주를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 핵심 기지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피지컬AI'는 로봇·제조·자율주행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제조 혁신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등과 함께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기술검증) 사업에 참여해 피지컬 AI 기술 실증 위한 기반조성 가능성을 확인한 바도 있다. 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피지컬AI-J밸리 조성에서 △종합계획 수립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피지컬AI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예산사업 기금 및 발굴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피지컬AI 분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5급 상당의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되는 전문 인력은 피지컬AI 분야 엔지니어 유치 전략 수립, 피지컬AI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중앙부처 및 기업 대외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남관우 시의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지방의원 "의정 공백 방지와 자치분권 강화 계기"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사진)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



이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임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손실과 시민 불신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관우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물류 부담 완화

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내륙 운송과 항공·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시는 총사업비 3000만원 규모로 약 15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

다. 지원 기업에는 내륙 운송비와 항공·해상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 90%를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국제특송(EMS, DHL 등)과 포워딩을 통한 국제운송비와 국내 운송비 등이며, 하역료 등 운송 관련 수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참고보관료와 보험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주택전세 대출 사기범 88명 검거

전세계약 대출제도 악용 85억 편취

도내 주택 전세금 대출 지원제도를 악용한 '2021년~2025년 주택전세대출자금 사기 일당'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에 검거됐다.



<사진=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LH)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금융기관) 등 총 69건 허위 전세계약을 악용해 85억원 편취 일당 88명(구속 5명, 불구속 83명)을 검거·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21년부터 '25년까지 도내 다세대 주택 주거 대출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심사(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국가정책 자금이 정작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 발생, 강릉전세 부동산으로 인해 실거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5년 4월

주요 피의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으로 전세금 대출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알고, 사전 모의를 통해 사회초년생인 20대를 포함한 금전적 취약한 계층을 허위임차인으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총책 △관리책(임대인

모집) △모집책(허위 임차인 모집) △공인중개사(대출서류 작성·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배한 후 허위 지원금·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해 LH·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허위 입주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이자를 LH·금융기관에게 지급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임대인은 퇴거한 호실에 제3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채무가 과다한 강릉전세 건물을 만드는 2차 피해를 야기했다. 수사팀에서는 허위 계약서, 장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압수·분석하여 다가구 주택 56세대, 69건의 허위계약 증거를 확보하고, 역할별 범주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진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기동대에서는 국민혈세를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시연구원 'JRI 이슈브리프 제17호' 발간

소상공인AX활성화지원방안제시 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을 규정했다. 이에 연구원은 향후 전주시 소상공인 AX 활성화를 위해 △AX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확대와 인지적 신뢰(Cognitive Trust) 구축 △AX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을 넘어선 인공지능 변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이하 AX)의 개념이 대두돼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새만금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점검

수목원 진입도로 개선방안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찾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은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화재진압전술 훈련 구슬땀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대비 훈련 팀워크 강화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를 대비하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진압분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전술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8일 전북 소방교육훈련센터(정수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전주덕진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6개 소방서 선수단과 평가관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연 종목은 화재

현장 상황을 반영한 화재진압전술로 진행되며 1위 팀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소방관들이 참가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센터탐장 최용석 소방경을 비롯한 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회 전까지 반복적인 전술훈련과 팀워크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예수병원 방글라데시 '기독교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전주예수병원이 참여하는 한국해외의료선교회(KOMMS, 이하 콤포스) 방문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3박 5일간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현지 의료선교 협력과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하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방문에는 전주예수병원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참여해 방글라데시 크리스천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코람톨라 기독교병원(KCH)의 운영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일정에 가장 큰 성과는 방글라데시 사상 최초로 개최된 '기독교 의료인 연합 모임(Fellowship Gathering)'이다. 전주예수병원이 주축이 된 콤포스는 이를 계기로 현지 의대생 멘토링과 정

기 모임 개최 등 차세대 의료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방문단은 콤포스가 후원하는 코람톨라 기독교병원의 안전한 자립을 위한 컨설팅을 협의했다. 동행한 한국 전문의들은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최신 의료 강의를 진행했고,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병원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코람톨라 기독교병원이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며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한국 병원 선교회에 모범적인 현지 이양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인재육성재단 1학기 장학생 110명 선발

지역우수인재·예체능 특기장학생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과 예체능 특기장학생,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등 총 110명(팀) 장학생을 모집한다. 먼저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은 고등학교 30명과 도내대학생 24명, 도외대학생 16명 등 총 70명을 선발해 고등학생 50만원과 대학생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3월 16일) 기준으로 전주시세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

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대학생은 전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다. 성적요건은 고등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신입생은 중학교 최종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 대학교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B+ 이상이다. 장학생 선발심사기준은 학업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자립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하며, 전주인재

육성재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재단은 예술 부문 개인 5명과 단체 2팀, 체육 부문은 개인 5명과 개인단체 4팀, 구기단체 4팀 등 예·체능 특기장학생 총 20명(팀)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장학 금액은 개인(예술·체육) 100만원, 개인 단체(체육) 150만원, 체육 구기 단체 및 예술단체 250만원이다. 성적 요건은 전문문화(국악), 미술, 음악 및 체육 분야 등 전국대회 1~3위 입상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장학생 선발심사기준은 수상실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자립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하며, 특기장학

생 단체의 경우 수상실적 50점만 반영된다. 최종 장학생 선발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재단은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부모세대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차상위계층 △기타생활이 곤란한 학생 등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방법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가족구성 30점과 생활정도 70점에 자립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발표

매출 증대·회복·재도전 지원·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지향점 발표

중기부는 16일 소상공인 디지털교육 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돼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했다.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 과 재도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해 안내했다.

핵심내용 첫째로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

로 이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 관광부문과 연계한다.

4월 초에 시작될 동행축제의 경우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모두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은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부실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또 재기지원 상담시 채무조정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들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전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 및 보완한다.

육아와 건강검진 부문 등에서도 근로



<사진=중기부>

자 못지않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감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도 더욱 쉽고 빠르게 개선한다. 중기부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통계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강화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상별 정책 정보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소민 기자



<사진=군산시>

농협 군산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기탁

군산시에 총 7,054만원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는 군산시청을 16일 방문해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기금 7,054만원을 전달했다.

이런 기금은 군산시의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가 사전 협약에 따라 지난 한해 사용된 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액 이용 실적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 결과다.

매년 적립된 제휴카드 기금은 군산

시의 지역개발 사업 및 시민 복지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범석 농협 군산시지부장은 “군산시와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군산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공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농진청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

비효율 절차 줄여 대국민 서비스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6일 청·차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불필요한 관행 폐기와 비효율 절차 개선을 다짐했다.

선언식에서 이승돈 청장과 김상경 차장을 비롯해 간부진 20여명은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을 전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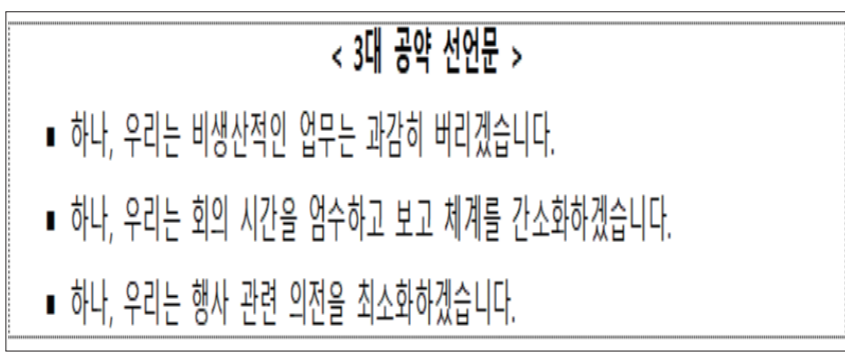
중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3대 공약 선언문은 하나, 우리는 비생산적인 업무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회의 시간을 엄수하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행사 관련 의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불필요한 관행과, 과잉 의견, 형식적 회의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고, 인공지능(AI)과 연계한 업무 혁신을 통해 직원 체감형 행정 효율화를 지속 추진



<사진=농진청>

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간부진이 먼저 솔선수범해 비생산적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소민 기자

전북TP, 도민 ‘창업생태계 활성화’ 강화

내달 7일까지 민간투자 기반 TIPS운영사 모집

도내 민간 중심 전북TP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TIPS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투자 연계 및 성장 지원이 이어

지는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기관 전문성 활용한 유망 기술창업 발굴과 체계적인 예비 TIPS 기업 육성이 함께 추진된다.

관련해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사업을 통해 총 5개 TIPS 운영사 선정과 총 10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TIPS 운영사이다.

신청 접수는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선정된 운영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약

1억8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정 운영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모델 고도화 △투자 역량 강화 △IR 코칭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협약 기간 동안 지원금 대비 2배 이상 직접 투자와 최소 2개 기업 이상 TIPS 추천을 추진해 기술창업기업 성장과 투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제조(피지컬 AI)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경제(기후테크) 등 전북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도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계한 ‘정충연 트랙’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VC 미팅 △글로벌 IR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도내 기술창업기업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포도, 고품질 경쟁력 높인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 재배기술 세미나 열려

전북 포도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북수출포도연구회는 16일 김제 로컬랜드에서 ‘정기 총회 및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연구회원과 포도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해 도내 포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프리미엄 포도 생산 기반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포도 공동 수출을 위한 회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로컬랜드(주) 이대훈 대표가 ‘프리미엄 포도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대표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이후 과원 현장에서 실습 중심의 재배 교육을 실시해 참석 농가들의 이해를 높였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함께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수출 농기뿐 아니라 고품질 포도 생산을 지향하는 도내 농가들이 참여해 재배기술 정보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북농기원>

2024년 기준 전북지역 포도 재배면적은 832ha이며, 같은 해 전북 포도 수출량은 39톤을 기록했다.

연구회는 이러한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재배기술 교류와 품질 향상 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 이준걸 사무국장은 “국내외 포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품질 생산 기술 확보와 농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교류와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 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중심 공동 출자·인데, 공동 농기계 작업 등 ‘경영 주체의 조직화’와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6개소 공동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법인 공동영농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에 2년에 걸쳐 20억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공동영농을 통한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법인별 경영 형태, 출자방식, 경작 규모, 지역 여건 등 특화된 컨설팅 및 밀착 관리를 통해 공동영농 성공 모델 정립·발굴해 공동영농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협 정읍시지부>

농협은행 정읍시지부 학생 ‘스포츠 재능기부’

스포츠자산 활용 사회공헌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16일 정주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테니스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행사는 농협은행의 스포츠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들이 일일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서브, 랠리 등 원포인트 그룹레슨과 함께 시범경기를 보여주며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선수단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운동복,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

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정읍시 학생들을 위해 스포츠 재능기부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농협은행과 소프트테니스팀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순기 지부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읍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스포츠 재능기부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발달지연 유아 조기 지원 추진

오는 23~27일까지 '드림아이 사업' 희망 유치원·어린이집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선별·개입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드림아이(Dream I) 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200여 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늘면서 발달 지연 영유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해부터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특별!

말해드림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추진하는 '드림아이 사업'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 92%라는 높은 호응을 얻었던 기존 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언어 발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올해는 신체 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 등 유아 발달 영역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 신청서 등을 작성해 본청 유초등특수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기관은 유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공통과제를 수행하며, △특별! 말해드림(언어) △건강아이(신체) △감성아이(사회 정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선택과제와 연계된



다지컬, 공연 관람, 체험학습 등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최재일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유아 발달 검사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 보육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1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추가 모집

미충원 44개 온·오프라인 강좌 대상 18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 이후 미충원된 강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1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교육청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모집 강좌는 '도시의 미래 탐구', '공중 보전' 등 온라인 12개 강좌를 비롯해 '과학과제 연구', '인간과 경제 활동' 등 오프라인 32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개, 남원 9개, 정읍 6개 강좌 등이

다.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 모집과 선발, 수업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이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고1·2 맞춤형 입시 설명회 개최

오는 27일까지 사전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달 4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고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예상되는 입시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2028-2029 대입 변화에 따른 준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최희원 서울 세종고 교사가 강사로 나서 대입 개편의 핵심 내용과 학년별 맞춤형 준비 전략을 구

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개인별로 사전 신청을 마친 뒤, 접수증을 출력해 행사 당일 지참해야 한다. 사전 접수 없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수용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최은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028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1, 2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형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청년자문단' 성과보고회

자립준비청년 참여권 강화 지역사회 문제 등 논의

굿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유기용)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준비청년 권리증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6명과 지역사회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GN 청년자문단' 2기 성과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GN청년자문단은 자립준비청년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복지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GN청년자문단 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GN청년자문단은 자립준비청년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

수렴하고 이를 본 기관의 사업과 정책,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GN청년자문단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북대학교 김서현 교수는 GN청년자문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활동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며 GN청년자문단의 방향성을 이끌었다.

유기용 굿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GN청년자문단은 자립준비청년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

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현대, 안양전 홈경기서 새학기 응원 이벤트 개최

팬 참여형 콘텐츠 강화 600여 개 경품 제공

전북현대모터스FC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안양과의 홈경기를 맞아 팬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전북현대는 지역 대학생들의 새학기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전북 지역 종합대학교(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

주대)를 대상으로 '대학생 새학기 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특히 경기 당일 가장 많은 학생이 방문한 학교에는 전북현대 선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Jackpot 19:30 랜덤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팬 참여형 홈경기 콘텐츠를 강화한다. /장정철 기자

참여 방법은 경기장 입장 후 전북현대 App을 통해 체크인을 완료 후 톨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약 600여 개의 경품이 준비돼 관중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은 하림의 데미시 컵라면, 빙스 1인 식사권, 디오션 숙박권 등 파트너사 협찬 물품으로 구성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문학·미술 등 442건에 총 19억 5천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2026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기초 예술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도내 역량 있는 전문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56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442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률은 41.8%로 전년도 대비 2.1%p 상승했다.

장르별 최종 선정 결과는 △문학 125건 △미술 86건 △사진 16건 △서예 11건 △공예 16건 △음악 101건 △연극 13건 △무용 13건 △전통 38건 △다원 예술 23건이다.

총 지원 규모는 19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되면서 지난해보다 83건이 추가 선정됐다.

중액 예산은 개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확대에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들은 창작·발표·연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과정과 현장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생리뷰단'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의지와 예술적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기획들이 다수 제안돼 지역 문화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창작 환경 조성과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연내사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bct.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창작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land acquisition. Title: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보세요!'. It lists eligibility criteria (age 65+, 10 years of farming), support amounts (up to 200 million won for 4ha), and application methods. Includes QR code and contact info: 1577-7770.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센터장 안태평) '청정시대'가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일 15주 과정의 '중기 2기'를 개강하며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인 사회 진입 준비를 돕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현재 취업이나 교육,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구직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중기 2기 과정은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시작으로 생활 경제 교육, 심리·직업 적성 검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등 다채롭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꾸러진다.

특히 15주간의 전체 수업을 모두 이수한 청년에게는 최대 220만원의 활동 지원비가 지급돼 참여자들의 학습 열의와 경제적 자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보건소 'HOHO 건강일터' 참여 사업장 5개소 모집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혜)는 지역 내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직장내 건강진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HOHO 건강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HOHO 건강일터 프로그램'은 30~50대 근로자의 주요 생활터인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총 5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업장 특성과 근로자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해 운영되며, 기초 건강 검진을 비롯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약 6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장과 협력해 근로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슬기로운 육아생활' 23일부터 선착순 20명 접수

익산시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23~27일 건강 육아 프로그램 '슬기로운 육아생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4월 2일 시작해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아체육지도자가 참여해 스킨십 체육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고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평화·인화·동산·마동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우선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북천로 326)에 방문하거나 팩스(063-859-4907)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미래 모빌리티 도시 '첫걸음'

익산역 중심 약 10km 구간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KTX 익산역과 주요 도심 거점을 연결하는 약 10km 구간에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철 건설국장을 비롯해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와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계획을 공유

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실시 및 확정 설계를 마무리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과 곧바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차량과 도로 간 실시간 통신(V2X)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차량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개방 서비스 도입' 등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시민들이 직접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원광대-익산역-익산시외버스터미널 구간(4.8km)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배산체육공원-익산역-전북대 특성화캠퍼스 구간(5.1

km)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실증 운행된다.

이번 사업은 SK텔레콤의 초정밀 통신 인프라 기술과 라이드플러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심 교통환경에 적용하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실증 사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익산시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교통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SK텔레콤 컨소시엄과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익산형 자율주행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중동 정세 대응 세정 지원

지방세 납부 연장 등 경영 안정 지원책 마련

군산시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부조사 착수를 보류할 방침이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기업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세정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이동노동자 쉼터 공모 선정

카페·편의점 활용 상생 모델 구축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45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카페와 편의점 등 기존 민간 상가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쉼터 운영 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조성하는 기존의 고정형 가점 쉼터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동선과 생활권을 적극 반영한 민간 협력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내 상업 시설을 휴게쉼터로 지정함으로써 배달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폭염과 한파를 피해 더욱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넘어 쉼터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쉼터 이용을 독려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안전 교육을 수료한 이동노동자에게 지정된 휴게쉼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6만원 권의 전용 선불카드를 지급해 실질적인 휴식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 근로자를 위한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 업무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현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자리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차질 없는 민간 협력형 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노동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다자녀가구에 패밀리카 무료 렌탈

연 1회·최대 4일간 여행 등 편의 증진 기대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

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연 1회, 최대 4일간 7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패밀리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차량 렌탈 비용은 군산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차량 렌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진



<사진=군산시>

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산 시청 인구대응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품목농협책임자협의회 개최

고상근원에농협상무,첫임기

전북 품목농협이 품목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품목농협책임자협의회(회장 고상근 군산원에농협 상무)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전북품목농협책임자협의회는 전북에 있는 5개 품목농협(군산원에농협, 김제원에농협, 남원원에농협, 익산원에농협, 정읍원에농협)의 4급이상 책임자 등이 모여 품목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여진 협의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품목농협 책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품목농협책임자협의회 사업계획 승인 △2026년 신규회원 가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품목농협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회고와 올해 협의체 운

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품목농협 간 유기적 정보 교류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각각의 농협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6년 협의회 회장 첫 임기를 시작한 고상근 군산원에농협 상무는 인사말에서 "현재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변곡점으로 AGI, 피지컬 AI 시대 대가 도래 했으며, 금융 또한 스테이بل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며 농협의 신용과 경제 사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실속 있는 화합 실천, 농산물이 제값받는 유통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외상 중증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외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최대 5만원까지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 복지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세(25개월)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외상 중증장애인이자, 지원 품목은 기저귀와 패드, 물티슈, 위생 장갑, 깔개 매트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전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지출한 구입비

의 50%를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이 외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시청 본관서 18일까지

익산시가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탁 종료로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가들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16~18일 3일간 익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업인 돕기를 위한 '익산 로컬푸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를 긴급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계약 종료와 기존 운영 주체의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가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현재 출하가 가장 시급한 딸기를 중심으로 방울토마토, 계란, 고구마 등이다. 시는 시청 방문객과 직

원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선보여 농가의 재고 부담을 즉각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장터를 시작으로 출하 농가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장터를 개설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운영 환경 변화로 고통을 겪는 농가들에게 이번 장터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야간 승마강습 운영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승마 인프라를 활용해 승마 대중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 승마강습'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야간 승마강습은 낮 시간 승마 강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평일 저녁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맞춤형 여가·체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습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오

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총 4개 기수로 운영된다. 기수당 5명씩 총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익산시 공공승마장(강변로 1105)에 방문하거나 전화(063-862-7871)로 하면 된다.

모집 기수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익산시 공공승마장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박차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농어촌 소득 기반 결합 군민 경제 기본권 보장

부안군은 16일 부안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발맞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해 군민의 실질적 경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기존 사업들을 기본사회라는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고 확대해 군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상풍력 수익과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연계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



16일 개최된 부안형 기본사회 구현 정책 발굴 보고회 <사진=부안군>

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금융, 기본기회 분야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로드맵,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기반 기본소득,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에 기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 및 학생 지원 확대 등 군

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들이 논의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시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군민 소득으로 돌아가는 부안형 모델을 완성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고창군 "안전한 출산 인프라 앞장"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지원 사업 선정

전북 고창군이 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에 나선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4억3300만원(국비 2억 1700만원, 지방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고창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멸균기 등 총 25종 37대의 의료장비를 교

체한다. 고창병원은 2015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임산부들의 분만과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고창군민은 분만진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번 장비교체를 통해 지역 임산부들이 먼 거리 이동없이 고창 지역내에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분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과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국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정적인 분만 의료체계 구축과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 전략 점검

매립지 관할결정 관련 법리·대응 논리 검토

김제시는 16일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향후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김제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법리와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현서 부시장을 주제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동향과 김제시의 주장 논리를 공유하고,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들을 통해 판단 기준이 이미 확립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과 관련한 두 차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매립지 관할 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매립지 전체적인 관할구도 △매립지의 효율적 이

용 △연접성과 경계의 명확성 등의 관할결정 기준에 비춰 볼 때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의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기반 확보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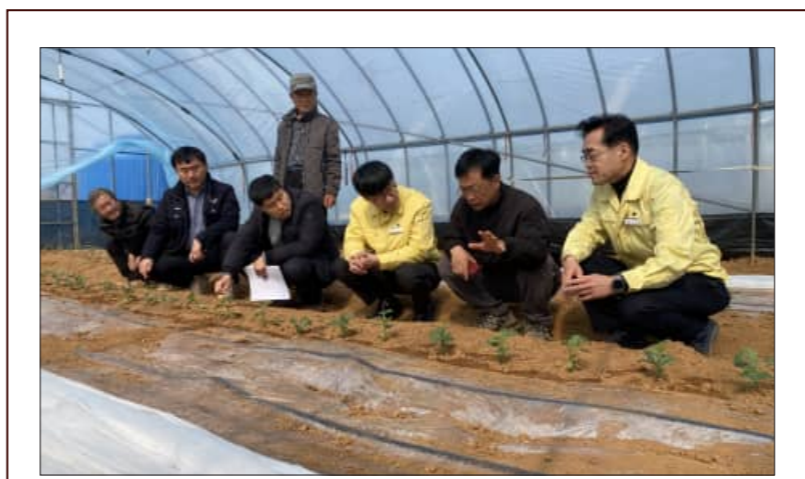
부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군민 체감 성과 극대화

부안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 체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수준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2026년 운영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성과 지표의 강화다. 군은 기존 지표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중앙·전북특별자치도 제안 공모

참여, 규제 개선 사례 선정 등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이는 군정의 핵심 동력인 예산 확보와 규제 해소를 적극행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전략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또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활동 배정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조정했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무자들의 의사결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소신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리더 마일리지 부여자 범위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체로 확대했다. 간부 공무원이 후배 직원들의 창의적

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직접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부서 내 소통과 협업의 에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일리지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마일리지는 최소 점수 도달 시 우선시량상품권으로 상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실무자들의 즉각적인 사기를 북돋우며 부서별 누적 실적은 연말 평가를 통해 상위 6개 우수 부서를 선정한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과 부서 모두에게 엄격한 감점을 부여해 공직기질을 바로 세우고 경각심을 유지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강화된 지표를 통해 군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결실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미니수박 첫 정식 시작

오는 6월 본격 출하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니수박'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 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은 오성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니수박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창군 미니수박은 2017년 재배를 시작으로, 고창미니수박연합회 중심으로 블랙망고수박,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 중·소과종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90ha로 2025년 기준 전국 미니수박 재배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생산되는 미니수박은 고창항도매기유통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

해 전국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6.1%(24년 인구총조사)를 넘어서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소형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미니수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니수박은 다양한 품종과 색, 모양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며, 일반 수박보다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정식된 미니수박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갈 차세대 전략 작목으로 미니수박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소비 트렌드에 맞춘 미니수박의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고창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생활문화센터 2분기 이용자 모집... 31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시민 문화활동 공간인 김제생활문화센터에서 2분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이용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17일 개관한 시민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다. 센터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별관(김제시 성산길 20)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는 밴드연습실, 맨스연습실, 개인연습실 2실, 회의실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북카페는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동아리, 단체이며, 동아리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김제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제생활문화센터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문화 확산을 이끄는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나이스정보통신(주), 부안군에 인재육성장학금 1천만원 기탁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은 나이스정보통신(주)(대표 김승현)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농농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23년에도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전달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현재 군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운영업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결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현 대표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나이스정보통신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윤봉기 기자

김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등 김제시는 16일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제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교직원 등 약 250여 명이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중독 예방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교외영양·저영양 식품 섭취 주의 △부정·불량식품 섭취 주의 △나트륨 줄이기 등 건강한 먹거리 선택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손 씻기의 중요성과 식품 위생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물을 배부하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수칙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주변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심리지원 진행

직무 스트레스 해소 도와 특히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추후 전화 상담 및 전문 치료 연계 등 집중 사례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심리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매년 중사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마음이 힘들 때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부안=윤봉기 기자

고창군, 구동·남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

고창군 대산면 구동·남계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심)이 지난 14일 '대산면 구동·남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열고 주민과 함께 3년간의 결실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지역 발전을 축하했다. '대산면 구동·남계마을 마을만들기'는 2023년부터 3년간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비롯해 문화프로그램, 마을 정원 가꾸기 등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주민들의 휴식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구동·남계마을 주민들의 많은 노고와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이 공간이, 주민 모두 하나 돼 활력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청년벤처 연구회, 현장 소통 간담회 열어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3일 지역 청년단체인 고창청년벤처연구회(회장 김종민)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현재 고창군에선 '청년창업패키지(약 2억 5000만원 규모)'를 통해 9개소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처 종료 청년농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농업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군은 청년스마트팜 앞에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사업'으로 청년형 주택과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다자녀형 주택을 지어 일터인 스마트팜과 연계해 지역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등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청년 취업·정착 협력 기반 강화

청년종합센터·캠틱기술원 협약 청년도전사업 등 공동 추진 상당·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와 (사)캠틱종합기술원이 완주군 청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협력에 나섰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사)캠틱종합기술원과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과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완주군 청년공간 활용 협력 △지역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발굴 △청년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청년 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캠틱종합기술원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청년 거점 공간을 활용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위한 심층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형욱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올해 1월 개소해 청년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취·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진행

10월까지 100개 마을 방문 자가 정비 실습교육 병행

순창군은 농업기계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순회 수리 교육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업기계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관내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기계 전문경력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수리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농업기계 점검과 정비 서

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수리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업기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소모성 부품과 기타 재료비 6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료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무상 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4·5등급·건설기계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남원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59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18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10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 시스템(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남원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제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372건 접수 황종길·박성민 팀 대상 20팀 선정 홍보 콘텐츠 대거 발굴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권덕철)는 지난 13일, 춘향제전위원장실에서 제96회 춘향제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4월 30일 개막하는 제96회 춘향제를 널리 알리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3개 부문에서 무빙포스터를 포함한 4개 분야로 확대해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372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심사는 마케팅 및 브랜드 전문가 등 7인의 외부 전문 위원에 참여해 실용성, 독창성, 기획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블라인드 평가를 거쳤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춘향제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며 “출품작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사진=남원시>

힘들었다”고 극찬했다.

영예의 대상(상금 200만 원)은 황종길·박성민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상금 150만 원)은 김병준 씨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상금 100만 원)에는 조은영 씨, 권용범 씨, 김승리·김유진·정소영 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장려상 5팀과 입선 10팀도 함께 선정되어 춘향제 홍보에 힘을 보태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권덕철 춘향제전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역대 최고의 춘향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무빙포스터, 홍보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96회 춘향제 홍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불용 농기계 36대 농가 경매 매각

퇴비살포기 등 15종 36대 24일 농기센터서 공개입찰

완주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다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불용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농가 경매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에서 실시하며, 16일부터 23일까지 삼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매각 대상 농기계 실물을 전시한다. 이번 매각은 감정 평가 금액 이상의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이 낙찰받는 방식이며 매각 대상은 SS퇴비살포기 등 15종 36대다.

경매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해 경매 당일 방문해야 한다.

군은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세대당 1대의 농기계만 입찰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최정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각되는 농기계는 노후 기종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전시 기간에 내·외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 달라”며 “이번 매각이 지역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국비 확보 '두 마리 토끼'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참여 고령자 45명 채용·세외수입 확보

남원시가 노인의 경륜과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비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4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7천4백46만 원의 고용지원금(국비)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공공서비스, 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ESG 분야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76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1인당 170만 원(월 34만 원×5개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어르신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 공식 출범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전담 조직 인허가등 민원 즉시 대응 기간 단축

남원시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민원신속처리단'을 공식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부시장실에서 주요 관과소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민원신속처리단' 결성식과 함께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처리단은 기업 현장에서 발

생하는 복합적인 민원을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인허가나 복합 규제 관련 고충이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 접수와 동시에 담당 부서 팀장들이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One-stop) 신속 처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의 선제적 발굴 △부서 간 업무 조율을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민원신속처리단은 우리 시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무적 핵심 엔진”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계절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래정 유아숲 체험원서 진행 지나해 1243명 참여 '호응'

순창군이 어린이들의 자연 친화적 감수성과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올해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군은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순창읍 가남리 귀래정 유아숲 체험원 일원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유아숲 지도사 1명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계절별 숲 체험과 오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병행한다.

귀래정 유아숲 체험원에는 정자와 원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트리하우스, 질리안, 흔들다리, 그늘놀이, 통나무 건너기 등 다양한 놀이·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어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군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사진=순창군>

해빙기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도 힘썼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0개 기관, 84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24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실제로, 순창어린이집과 순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풍산초 병설유치원 등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북부권 택시업계 공영마을버스 협력 모색

택시 운수종사자 간담회 개최

완주군이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유희대 완주군수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고산북부권 택시 운수종사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공영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지역 교통 환경 변화를 살피고

택시업계의 역할과 상생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와 택시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택시업계가 새로운 교통 환경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과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성가정식품, 2천5백만원 상당 갯잎장아찌 순창군에 기탁

순창 성가정식품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갯잎장아찌 3kg 250개(2천5백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성가정식품은 4대에 걸쳐 전통 장류와 절임류 제품을 생산해 온 지역 기업으로, 품질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가정식품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직접 소량 포장 작업을 하며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청소년활동포인트제 참여 청소년 모집

장수군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군 청소년활동포인트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참여 청소년 모집에 나섰다.

청소년활동포인트제는 청소년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시 장수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보상형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2008.1.1.~2013.12.31. 출생)이며, 1차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들은 △장수군 관광지 방문 △장수군 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군립 및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장수군 공식 SNS 팔로우 및 홍보 게시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3만 포인트 이상부터 장수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약천사,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백미' 20포대 전달

무주군 무주읍에 자리한 '약천사'의 범성 스님이 16일 쌀 20포대(1포대 10kg)를 무주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읍에 따르면 쌀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주민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범성 스님은 "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계, 가족·사회적 유대를 상징하며 식사와 관련한 인사는 서로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과 배려를 담은 표현일만큼 소중하다"라며 "이웃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쌀이 모두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보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군민 모두 홍보대사' 군민과 함께 지역 홍보 나서

진안군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전 군민을 진안군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추첨된 유일안만 일일 광장에서 열린 진안군원 고로쇠축제 행사 메인무대에서 '진안군민 명예홍보대사 임명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진안군민 모두가 진안을 알리는 홍보대사라는 의미를 담은 군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임명은 특정 인물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 2만5천여 명의 진안군민 모두를 2027년까지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이례적인 시도로, 군민이 직접 지역 홍보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활기찬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고, 군민 스스로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주체가 되도록 추진된다.

진안군은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홍보 챌린지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을 통해 '진안군민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민 기자

무주군, 高유가·高물가 극복 최선

읍면 전통시장·리조트 등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유

무주군은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범군민 물가안정 동참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상권문화 정착 및 소비·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전통시장과 리조트, 구천동, 서창 등 각 읍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캠페인 첫날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박용식 상인회장 등은 무주읍 반딧불시장과 전·후간 도로, 터미널 주변을 돌며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비롯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온라인 마케팅', '화재보험', '카드수수료', '노란우산 공제', '착한가격 업소', '전통시장 화제



무주군은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범군민 물가안정 동참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공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중동 여파가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주군 비상경제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적극 움직이고 있다"라며 "물가안정 캠페인이 바로 그 첫걸음으로 위기 상황을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2026 옥정호 벚꽃축제

강아지와 함께 더 특별하게 4월 11일~12일 개최

올해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가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려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봉어섬 일원에서 열리는 '옥정호 벚꽃축제'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과 팻투어가 함께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축제기간 동안 미니 어질리티 대회 △기다려 대회 △반려동물 보물찾기 △반려동물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골든벨과 반려동물 에티켓 퀴즈 등 비반려인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팻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팻투어는 하루 40팀 규모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19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벚꽃 축제장을 방문해 축제 관람과 함께 어질리티 대회 등 반려동물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팻투어 참가신청은 (주)팻츠고트래블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축하공연과 옥정호 벚꽃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첫날인 4월 11일 오후 3시 개막식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초호화 출연진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추진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모델 구축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원

장수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해 군민 맞춤형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군은 기존처럼 의료와 요양, 돌봄을 각각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고령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대신 살던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것이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의료기관 협약 등 사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사업이 전면 추진됨에 따라 군은 대상자를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군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구축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군은 '돌봄이 일상이 되는 장수'를 목표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돌봄공백 해소 위한 일상 돌봄 △주거 공간 개선 등 분야별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방문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의 보건·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 병원·시설 중심에서 재가·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의료 지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도시

락 배달, 독거노인 공동돌봄 운영 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주거개선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과 경보수 서비스도 지원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 통합돌봄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사전조사, 통합지원회의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러한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제도화돼 확대된다.

장수군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 건강 관리와 인공지능 기반 건강 모니터링 도입, 주민 참여 확대,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정주환경·일자리 등 전반 인식 조사

장수군은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장수군의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및 일거리, 체류·관광, 청년, 생활인구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주민 인식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 여

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장수군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4월 13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작업 부담 줄이는 편의장비 10종

임실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여성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최고 3년 이내 본 사업 수혜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기 △소형관리기 △충전기 전기톱 △삼초제거기 총 10종을 지원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서울로'

서울 영등포역서 판매장 운영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이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서울 영등포역에서 소비자들과 만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영등포역 KTX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이 통로에 반딧불유통사업단(단장 김인관)과 무주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단장 박희숙)과 함께 특별 판매장을 마련했으며, 천마, 도라지, 사과 등 무주 대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현장 시식 등 판촉 행사를 통해 전국을 오고 가는 소비자들에게 무주 농·특산물의 맛과 품질을 알릴 계획이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무주 농특산물은 반딧불이 가 살아 숨 쉬는 청정 고향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라며 "이번 행사가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판촉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또한 현장 시식 등 판촉 행사를 통해 전국을 오고 가는 소비자들에게 무주 농·특산물의 맛과 품질을 알릴 계획이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무주 농특산물은 반딧불이 가 살아 숨 쉬는 청정 고향에서 생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라며 "이번 행사가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판촉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임실군 오수관촌면 지역

임실군이 농촌지역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실군은 최근 군청에서 한국 LPG 사업관리원 및 설계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실시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용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로 배관망을 연결해 LPG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최근 설계 용

역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오수면(오수리·금암리)과 관촌면(관촌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고품질 비중에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민군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농간의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체납액 균면면 합동 징수활동

체납액 최소화·성실 납부 독려

임실군은 올해 6개 지구(관촌면 도봉, 병암1, 병암2, 슬치, 용산1, 용산2지구) 임실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부과되며,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납부 지연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체납액 제고를 위해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현황을 정비하고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체납자 대상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납부 방법 안내 및 분할 납부 상담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 시유를 파악하고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임실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봉동읍 남만우 이장, 활동수당 모아성금 기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모아엘가 남만우 이장(53)이 16일 이장 활동수당을 꾸준히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 원을 봉동읍에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원주=김명곤 기자

전주인후신협은행 이근경 주임 '로맨스스캠' 공로 인정

빠른 판단력으로 고객자산 3240만원 보호

인후신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이근경 직원의 깊은 관심이 고객 금융피해 보호로 이어지며 그 공로가 인정됐다.

신협직원의 빠른 판단과 조치는 지역민 자산을 지켜주며 추가 금융피해를 막았다. 로맨스스캠이란 신분을 위장해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아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이다.



합원의 소중한 자산 관리·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인후신협은행은 앞으로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심되는 즉시 반드시 주변이나 경찰에 상담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태 기자



장수 장계면, 출생가정 4가구에 축하선물 전달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13일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생자 축하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가정에 육아용품과 놀이용품 등 2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정수=최진수 기자

엔라인 난닝구 닷컴, 무주군에 5천만원 상당 의류 전달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 나눠

여성 의류 전문업체 ㈜엔라인 난닝구 닷컴이 지난 13일 무주군에 5천여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1천여벌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엔라인 난닝구 닷컴은 여성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여성층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랑의 열매'에 약 23억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알려졌다. /무주=최의호 기자



김제 만경읍 서화정육점, '착한가게' 동참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정기기부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서화정육점(대표 서화정)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덕과초등학교 학생들, 덕과면행정복지센터 견학

덕과면(면장 박종만)은 지난 12일 덕과초등학교 2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행정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에 '선물꾸러미' 120세트 기탁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

전북은행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 8종이 담긴 '선물꾸러미' 120세트를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온정을 나눴다.



으로 생활고를 겪는 관내 저소득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전북은행

측에서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이 기탁한 물품은

총 300만 원 상당으로 즉석밥, 라면, 소면, 누룽지, 김, 치약, 칫솔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8종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군은 기탁받은 선물꾸러미를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20가구에 신속히 배분할 계획이다.

/원주=김명곤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새만금을 정치인의 징검다리로 쓰지 말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새만금이 또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정치권 진출을 위한 '선거 징검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지역 사회에서는 국가 전략 사업의 수장이 정치 행보를 위해 자리를 떠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의 본질은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이라는 국가 프로젝트가 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볍게 다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방조제를 막는 토목 사업도, 몇 개 산업단지를 만드는 지역 사업도 아니다. 산업·물류·관광·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장기 국가 전략 사업이다. 전북에게는 미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 조정,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출범 이후 청장 교체가 잦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정책의 연속성이 약하고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다면 새만금이 정치권 인사들의 경력 관리용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공직자의 정치 참여 자제를 문 제 삼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모든 공직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 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그 책임의 무게는 훨씬 크다. 그 자리가 정치적 경력을 위한 중간 정거장처럼 소비된다면 공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정치에 흔들려 온 사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달라졌

고 정치권의 논쟁 속에서 사업 속도도 여러 차례 늦춰졌다. 그 과정에서 전북 도민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야 했다. 문제는 정치가 새만금을 이용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새만금은 정치권의 단골 소재가 된다. 누군가는 개발 지역을 공격하고 누군가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작 새만금 사업의 장기 전략과 정책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새만금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과 리더십이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린다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 경제와 전북 도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책임과 제도적 안정성이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정치적 메시

지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가 새만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위해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은 정치인의 경력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를 건 국가 프로젝트다.

사설

전북 공공의료 새 전기 맞은 국립의전원법 통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남원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년째 표류해 온 국립의전원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법안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생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만성적으로 제기돼 온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통과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자 보건복지위 소속인 박희승 의원의 역할이 컸다.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 온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사실 국립의전원 논의는 지난 2018년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의대 정원이 사라지면서 전북 동남권의 의료 인력 기반은 급격히 약화됐고, 남원 지역사회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

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정치적 논쟁 속에 법안은 여러 차례 좌초되며 긴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성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2030년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실행력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설립 단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절차와 논의가 적지 않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의료 인력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 지역사회가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랜 숙원이 첫 문턱을 넘은 지금, 남은 과제는 차질 없는 실행과 성공적인 정착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책임 있는 추진으로 그 약속을 완성해야 할 때다.

남원 용담사 석등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석등
지정일 - 2019년 12월 20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남원시 원천로 165-26 (주천면, 용담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 나희택

어느 부끄러운 영혼이
절간 옆 툇밭더미를 쪼고 있다.
마치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정답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나고
문지는 않기로 한다.
새도 짐승도 될 수 없어
퍼드득 낮은 날개의 길을 내며
종종걸음 치는 한 생의 지나감이어
툇밭가루는 생목의 슬픔으로 찾아 있고
그것을 울며 가는 나여
질은 그늘 속
떠나지 않는 너를 들여다보며

나는 이 생의 나와 화해한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면서
불쌍히 여길 무엇이 남아 있는 듯
까웁까웁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기도 한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었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

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군산 수산업 재도약의 힘찬 출항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구현

군산시는 K-씨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 나아가길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대학교, ㈜풀무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육상김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 주관 약 350억 규모의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인 (주)풀무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군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시는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268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2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조성해왔다.

여기에 수산 식품 분야 최첨단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고, 한 단계 높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입주기업 및 지역 수산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장비와 지원시설을 갖추게 되면 △수산 식품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 촉진 △기업지원·수출지원 등을 통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와 함께 글로벌 K-씨푸드를 선도할 또 다른 축인 수산식품단지는 수산 분야 핵심 기반 시설인 일일 3만 톤 규모의 해수(海水) 인·배수 공급시설이

AI·IoT 기반 스마트HACCP 적용 스마트 수산가공센터 착공 수산분야 필수 해수 인·배수 시설 일 약 3만톤 규모 공급시설 조성중

경쟁력으로 꼽힌다.

시는 핵심 인프라 시설인 해수인·배수 시설을 비롯한 내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에 도비·시비 등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완료 목표로 순조롭게 조성하는 중이다.

기업 입주 또한 지난해 10월 입주 계약을 완료한 후 착공 및 공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총 2,3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자와 549명의 직접고용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고부가가치 김 산업 수출전략기지를 조성하고, 수산 가공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K-씨푸드의 핵심 시장인 프리미엄 김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등 지

역 수산물을 가공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단지 지원을 위해 해양 바이오 특성화 지역대학인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해 수산식품 개발·디자인 지원과 연구 장비 공유는 물론, 수산식품 분야 인재 양성과 전문기술 인력 육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 주요 식품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산 식품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군산 수산업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선 7기인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기공식 및 민간기업 착공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군산시가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건립조감도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탄산

100%



TERRA

FROM AGM



TERRA

FROM AGM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제조사/판매사: 하이트진로